

비추다

1주 차 "어둠 속에서 기다리기"

이사야 9:1-7, 요한복음 1:1-14

2022년 12월 4일

- 전통적으로 B4에서 우리는 집합적으로, 개별적으로 ADVENT 기부에 참여했습니다.
- 12월 동안 기도해 주시고 추가 선물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이제 우리는 꽤 대담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올해 초에 이것을 시작했습니다.

내년을 위해...그래서 우리는 이 상자들을...집에 가져가서 채우도록 했습니다.

옆면에 For the City(도시를 위해)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QR 코드가 있기 때문입니다.

- 상자든, 수표든, 온라인 선물이든 정기적으로 주는 것 이상으로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초대합니다 .

공지 사항

- 크리스마스 축제 | b4church.org/christmas - 정보가 있습니다.

누군가에게 크리스마스 초대카드가 보내시기 바랍니다.

- 다음 주에는 어린이 크리스마스 합창단이 예배를 인도합니다. // 우리 유치원 - 5학년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

메시지

-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초점을 맞춘 Illuminate(비추다)라는 짧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.
- 하지만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설명하고 싶습니다.
- 창세기로 돌아갑니다.
- 창세기의 시작은 강렬합니다
- 시적이기 때문에 항상 좋아하지만 조금도 낭만적이지 않습니다.
- 이 이야기의 시작 - 이 인류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됩니다.
- 히브리어 "ELOHIM"
- 그리고 이 하나님, 이 엘로힘이 창조했다고 말합니다.
- 천국이 있습니다.
- 지구가 있습니다.
- 그러나 그것은 이 지구,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이 장소라고 말합니다.
- 무형.
- 무효의.
- 어둠.
- 히브리어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. "Tohu va 보후 "
- 그러나 경험하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.
- 혼돈입니다.
- 야생입니다.
- 낭비입니다.

- 상자 밖으로 던져진 직소 퍼즐의 모든 조각처럼
- 철저한 무질서...단순한 무질서가 아니라 조직의 대립입니다.
- 우리는 조직의 부족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혼돈.
- 토후 입니다
- 무형.
- 무효의.
- 어둠.
- 그러나 그 물 위에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
-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숨결.
- 그러면 호흡이 목소리가 됩니다.
- 그리고 이 음성이 말하고 있습니다.
- 단어가 있습니다.
- 그리고 그 단어는 혼돈에 질서를 가져옵니다.
-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의 음성, 하나님의 숨결로 혼돈을 무언가로 바꾸십시오.
- 어둠을 빛으로 바꿉니다.
- 어떤 종류의 말씀이 있으며 이 말씀에는 빛이 있습니다.
- 빛이 있어 빛이 좋았다.”
- 지금.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. 이것은 이 매우 긴 책을 시작하는 흥미로운 방법이 아닙니까?

- 우리는: 하나님
- 우리는: 하나님, 혼돈과 어둠
- 그러면 다음이 있습니다.

하나님, 혼돈과 어둠, 단어

- 그리고 다음이 있습니다.

하나님, 혼돈과 어둠, 단어, 빛

- 그것이 바로 이 책, 즉 하나님과 인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.
- 하나님과 어둠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으며 이 말씀으로 빛이 있습니다.
- 이제 어둠과 빛이 히브리어에서 매우 연상적인 단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

- 어둠은 신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불러일으킵니다.

- 악인 (잠 2:13),

- 심판 (출 10:21),

- 죽음 (시편 88:12).

- 어둠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.

- 또는 정직한 것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.

- 밤에 얼마나 더 혼란스러운 신비한 소음이 있는지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?

- 그 소리?

- 무엇입니까?

- 밤에는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.
- 삽화: PJ와 Jenny
- 몇 년 전 몇몇 친구들이 자신이 살았던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.

그들이 대학을 갓 졸업했을 때.

- 이상한 이야기를 연이어 들려주었다.
- 뒷머리가 곤두서게 만드는 이야기들.
- 이것들은 훌륭하고 오싹하고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.
-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날 것 같습니까?
- 밤에.
- 어둠DARKNESS에는 어떤 것을 나쁘게, 심지어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.
- 창세기로 돌아가기. 그게 세상이었다. 어두웠다.
- 하지만 빛이 있습니다
- 창조주의 첫 작품이다.
- 빛은 은유적으로 사용됩니다...
- 생명을 위하여 (시편 56:13),
- 구원 (사 9:2),
- 하나님의 신성한 임재를 위해 (출 10:23).
- 첫 번째 창조 행위에서 "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".
- 빛은 항상 성경 역사의 전개에서 어둠을 제거

- 항상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빛입니다.
- 어둠을 그냥 방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끄지 않습니다.
-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.
- 왜?
- 빛이 어둠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.
-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. 혼돈. 어둠 .단어.빛 .
- 그것이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.
- 그러나 그 이야기를 계속 읽으면 혼란이 생깁니다.
- 여전히 낮이 있고, 여전히 밤이 있습니다.
-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분리가 있습니다.
- 그리고 페이지마다. 해마다. 세기를 거듭하면서 여러분은 어둠의 이야기를 읽습니다.
- 절망,
- 혼돈,
- 슬픔,
- 외로움.
- 빛을 잃은 삶입니다.
- 인류는 낮에 살지만 어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.
- 그리고 기원전 700년경에 우리는 이사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.
- 그는 유다 백성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그의 글에는 두 번째 층이 있는 것

- 편지 속의 편지
- 행간 단어입니다.
- 그는 현재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미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.
-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의 글에 대한 실제 원고가 있습니다.
그리스도의 탄생 전.
- 특정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.
- 사람들이 필사적임을 기억하십시오. 삶은 혼란스럽다. 그것은 슬픔,
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.
- 그런 다음 다음을 읽습니다.

이사야 9:1-7

1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

2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

3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

4이는 그들의 무겁게 멘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

5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물은 복장이 불에 쏘 같이 살라지리니

6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, 모사라, 전능하신 하나님이라, 영존하시는 아버지라, 평강의 왕이라 할것임이라

7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

•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은 이 순간에 어둠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선언, 그 빛이 다시 보일 것입니다.

• 빛이 올 것이다.

• 아이가 생길 것입니다.

• 희망, 평화, 기쁨,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.

• 어둠이 있습니다.

• 이런가운데 아이의 탄생을 기대합니다.

• 기대를 상상해 보십시오.

• 여기 사람들은 상대적인 어둠과 혼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.

• 그것이 바로 이번 시즌, 대림절의 모든 것입니다.

•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하는 것입니다.

• 아직 오지 않은 갈망, 욕망에 관한 것입니다.

- 아직 여기에 없는 것.
-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립니다.
- 통증이 있는 경우.
- 모든 것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.
- 어느 날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성전에서 있었습니다.
- 그는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.
- 그는 그녀에게 달려갑니다.
-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.
- 그리고 그는 자신이 기다려온 일 때문에 이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.

실제로 도착했습니다.

- 신이 있었다.
- 혼돈과 어둠이 있었습니다.
- 말씀으로 빛이 있었습니다.
- 시므온의 대답은 요한계시록의 시작 구절을 읽을 때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.

요한복음 1:1-14 1

1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

2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

3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

4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

5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

6하나님께서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

7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

8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

9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

10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

11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

12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

13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

14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

• 우리에게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.

-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.
- 그리고 그 말씀은 세상의 빛입니다.
-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.
- 삶이 밝아집니다.
- 혼돈, 걱정, 고통, 혼란, 고통이 쫓겨납니다.
- 우리는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
- 우리는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.
- 우리는 목적과 의미를 파악합니다.
- 우리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갈망합니다.
-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편안함을 갈망합니다.
- 그리고 빛이 옵니다
- 가장 깊은 그리움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인간의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

삶의 가장 어두운 곳.

- 일러스트레이션: 아이언맨
- 여러분 중 일부는 제가 2주 전 일요일에 대회에 참가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.

Ironman을 완성하는 중이라고 말하십시오.

- 2.4마일 수영 • 112마일 자전거 • 마라톤
- 12시간 30분 동안 경주가 계속됩니다.

• 그리고 그것은 내가 신체검사(정서적, 정신적 관점)에서 해본 것 중 가장 흥미로운 일 중 하나였습니다.

• 경기중 기분이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.

• 결심이 설 때가 있었다.

•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.

• 하지만 어두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.

•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코스의 마지막 마일이었습니다.

• 한동안 해가 저서 가로등 아래에서 뛰었습니다.

•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들어갔을 때 빛이 없었습니다.

• 그리고 팬도 없었습니다.

• 그리고 이 특별한 순간에 다른 두 명의 선수만 있었습니다.

• 그리고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우리 자신의 발소리였습니다.

• 이것은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였으며...영원히 지속되었습니다.

• 그러나 그때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모퉁이를 돌았지만

군중,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없었고, 주변의 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.

• 그런다음, 갑자기 빛 속에 있었고 팬들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.

사진: 아이언맨 피니시.

• 당신과 나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.

• 빛이 있습니다.

• 우리는 볼 수있고,

• 우리는 숨 쉴 수 있습니다 .

- 희망이 있습니다.
- 생명이 있습니다.
- 이것이 우리가 기다려온 것입니다.
- 이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입니다.
-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바라던 것입니다.
- 세상의 빛이 왔다.
- 그러나 상황의 변화나 고난의 끝이 아닙니다.
- 도로가 우리 뒤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.
- 아니오. 이것은 그것보다 더 깊습니다.
- 이 빛은 가장 어두운 밤에도 올 수 있으며 아픔 속에서 우리를 만납니다.
- 삽화: Naimos
- 몇 년 전 일요일에 일찍 일어나서

내가 전화를 받았을 때 내가 고통에 대해 설교하려는 메시지같았습니다.

-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응급실에서 다섯 살 난 아들 메이슨을 갑자기 바로 그 질병으로 잃었습니다.

그것은 몇 년 전에 내 딸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.

- 나는 아직도 타이밍을 이해하지 못한다. 그날 그 설교는 내가 할 설교였다.
- 하지만 똑같이 잇을 수 없는 것은 내 친구의 목소리였다.
- 비극.
- 충격.

- 그러나 어쨌든, 힘.
 - 어떤 식으로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는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.
 - 그리스도 때문에.
 - 가장 어두운 밤에도 우리는 기다립니다.
 - 우리는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갈망하지만 그것은 무언가가 아니라 누군가입니다.
 - 그것은 하나입니다.
 - 예수님입니다.
 - 그리고 그는 당신이 처한 어두운 순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
 - 보세요, 정말 속일 수 있는 이와 같은 방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.
 - 방을 둘러보고 그 사람, 그녀의 삶, 그의 삶,
“내 것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. 그들은 내가 앉아 있었던 어두운 밤의 종류를 모를 것입니다.
 - 그러나 Taylor Swift라면 우리 모두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.
 - 하지만 진심으로...우리 모두는 때로는 매주, 때로는 매일 다음과 같은 순간을 탐색합니다.
- 예수님이 들어가길 간청하는 어둠.
- 세상은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.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분이 오셨습니다.
 - 그리고 그는 당신을 위해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.
 - 강림의 계절인 이 계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렸습니다.

- 그것은 희망이 현실이고 누군가가 오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.
- 강림절은 우리의 냉소주의에 몰래 다가와 희망과 새로운 날의 발표.
- 세상의 가장 깊은 곳으로 세상의 빛을 초대하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. 냉소나 비통함이나 강박함을 버리고 어둠을 몰아내십시오.
- 우리가 열리는 이번 시즌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.
- 부드러워집니다.
- 그리고 그날의 방향으로 마음을 돌립니다.
- 아기 울음소리가 밤을 꿰뚫는 그 날, 우리는 목자들과 천사들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.

성찬식 소개

- 오늘 함께 성찬식을 마치겠습니다...
- 하지만 여기에 참여하기 전에 반성하고 고려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.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읽은 이 순간이 일어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, 그리고

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날들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